

제439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6일(수)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7)
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6)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7)
6.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강신철) 인사청문요청안
7.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강신철)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7) 2
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6) 3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7) 3
6.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강신철) 인사청문요청안 4
7.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강신철) 인사청문회 4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한 법률안을 상정·심사한 후에 강신철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주질의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강신철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충·추가질의의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해서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의 세부적인 제출 요구 및 기한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를 위해서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 된 것으로 보아서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특히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 간에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되 오늘 오후 회의에서는 반드시 의결해야 국정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조속하게 의논해서 합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상정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별도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7)

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6)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7)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소송법이 처리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서 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문성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에서도 검사의 지휘 문구를 삭제하고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규정을 협력관계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과 수사관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들 3건의 개정안은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때는 가급적 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인사청문회를 회의장이 정돈, 정비한 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과 청장님께서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진성준 다시 오실 거예요. 오후에 또 다시 오실 거예요.

6.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강신철) 인사청문요청안

7.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강신철) 인사청문회

(10시17분)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강신철)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7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강신철)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한 바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는 강신철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강신철 후보자께서 국방부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대내적으로는 국방개혁과 군 지휘체계 개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전력 강화, 사관학교 통합 등의 현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일 안보협력과 북·러 군사협력 대응 등 여러 도전적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 공직 임명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는 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고 또 강신철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과연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입장과 소신, 또 국방 정책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신철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강신철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가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공직후보자 강신철

○위원장 진성준 이어서 강신철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군에 대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국방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전사 공동체인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과 예비군, 군무원과 국방부 직원 그리고 모든 국방 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표현하기 어려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고 승리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군사적 자유를 확대하고 전략적 선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적과 위협 세력들의 기회를 제한하여 국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방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겠습니다. 승리가 국방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국방의 정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전 영역에서의 국방 태세를 확립해 나가면서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한미 동맹의 결속력 아래 연합 방위 태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국방 개혁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전사들이 어디에든 전개할 수 있고 어디든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적이라도 압도하는 능력으로 억제하여 경쟁에서부터 승리하도록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승리하는 전사 문화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전에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전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스마트 국방 역량을 갖춘 전사들의 문화를 기반으로 합동성과 전 영역 작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방 가족들의 사기와 복지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사 문화입니다.

국방 가족들이 체감하는 사기와 복지 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도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십시오.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진성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종득 위원 예.

○위원장 진성준 그러시지요. 3분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오늘 강신철 후보 인사청문회에도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천하람 개혁신당 위원님이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정작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람은 아무도 부르지 못한 청문회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검증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열린 인사청문회 총 45건입니다. 그중의 38건이 증인 없는 청문회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나 개별 청문회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통한 사실 확인과 검증이 사실상 봉쇄된 것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아예 자료 요청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번에 제기된 후보자 의혹 상당수가 가족과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에 비동의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도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유튜브에 출연한, 그래서 직접 언급한 대장 시절 지뢰지대 관련 발언에 관련해서 사실관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자녀도 장교로 복무해서 복무기록을 점검하고자 자녀 병적기록을 요구했지만 역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을 통한 확인은 막혀 있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마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후보자를 검증합니까?

후보자 자녀의 7억 원대 차용 의혹도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돈을 빌린 경위와 상환 능력, 실제 상환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련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련자를 불러 확인할 수도 없고 가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러한 국민 앞에…… 이것이 국민 앞에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 임명을 위한 통과례입니까? 국민의 알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국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치르라는 것입니까? 저를 비

릇한 국민의힘 위원은 이러한 형식의 일방적인 청문회 진행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오전 중에도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김병주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진성준 김병주 간사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국방부장관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아주 중대한 자리입니다.

실제 임종득 간사가 요구했던 증인·참고인들은 많은 부분은 능력과…… 청문회의 원취지, 능력을 검증하는 취지와 무관하게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가 청와대의 인사 라인들을 증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청문회장을 능력 검증이라든가 청문회 원취지에 맞지 않게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고 이러한 증인들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청문회는 원래 청문회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인데 청문회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지명이 되면 바로 50만 대군을 지휘해야 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의 청문회는 참으로 절차와 형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부터 청문 방식을 국방위에서만이라도 능력과 정책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고 또 제가 야당일 때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는 행동으로 했습니다. 도덕성은 별도 서류로 확인을 하고 능력과 정책 검증을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끝나고 나면 50만 대군의 영을 세워 주는 것이 우리 국방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국방위가 모범을 보이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의 원취지에 맞게 장관후보자의 능력과 정책 검증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의혹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관후보자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증인·참고인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 채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임종득 간사 위원께서 지금이라도 합의해서 채택하자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늘 하루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 5일 전까지 합의해서 출석을 요청해야 되는데 증인을 채택해서 요청한다고 해도 출석의 의무가 없고 그리고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잡아서 진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여건하에서 최대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최대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 국방부의 협조 또 가족의 협조를 얻어서, 개인 동의를 얻어서 제

출해 주셔서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남김없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되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후보자님, 업무적으로도 여러 번 뵙긴 했지만 우선 장관 지명 축하하고요.

군인은 명예를 먹고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 철칙으로 알고 살아왔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휘관은 명확한 지시와 간결한 명령으로 부대를 지휘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성일종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아드님이 말이지요, 아드님께서 몇 살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서른 살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드님 재산이 한 7000만 원밖에 없는데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정도를 샀어요. 알고 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30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고 지금 답변을 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후보자 자산이 11억 2000만 원이에요, 다 합해서. 아들이 산 게 7억이에요. 후보자 자산보다도 더, 50%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제대하고 나와 가지고 사회생활 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상가를 샀는데 여기 양지마을이 공교롭게도, 6월 30일 날 아드님이 상가를 샀는데 이날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양지마을 아파트 주민대표단들이 성남시에다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접수한 날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는,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돈을 빌렸는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192만 원이에요. 세로 받는 것이 약 120만 원인가 그래서 60여만 원 정도 매달 손실이 나요. 이 투자를 하는데 부모가 몰라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제가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것 어머니도 몰라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제 아내도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모부하고 이모가 조카한테 7억을 빌려줬는데 이모나 자식들이 전연 얘기를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아마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성일종 위원 무슨 전쟁 중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가 외국에 있었습시다.

○성일종 위원 아니, 외국에 있다 그래서, 지금 SNS고 뭐고 다 되는데……

그러면 후보자는 말이에요 아들이 이러한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회생활도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들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2030이 집 한 칸이 없고 월세가 치솟아서 거리로 나왔게 되어 있는 판에 4성 장군을 하고 장관후보자가 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이걸 사는데 이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아빠찬스도 아니고 이제 이모찬스까지 썼어요.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이 10대나 20대, 30대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 50만 대군을 지휘해야 되는 장관의 지위에 있어요. 아들 하나 간수 못 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다는 말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30이 된 아들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항상 신뢰해 왔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성일종 위원 믿고 안 믿고 그런 얘기 간결하게 하세요. 내가 먼저 그랬잖아요. 부대 지휘하려면 명확한 지시와 간결하게 명령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시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 이 문제도 모르고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굉장히 무능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또 이 문제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회에 이 보고를 누락을 했다고요. 인사청문보고서 3일 날 보낸 것에 이것 빠트렸어요. 그래 놓고 나서 4일 날…… 여기에 취득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시다.

○성일종 위원 취득세도 그것 건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료로 나옵니다, 본인이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후보자는 상당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것을 누락시켜 놓고 4일 날 인사청문단장이—뒤에 있는 것 같은데—행정실로 전화해서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부분은 다른 부처에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와 관련된 부처에, 인사혁신처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천하람 위원이 이 누락 부분을 얘기한 그날 30분 뒤에 임종득 간사실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3일 동안은 왜 설명을 안 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누락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입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이 누락됐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3일, 당일…… 4일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부하들이 누락되고 있을 때 바로 보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한테 바로 보고가 됐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아니, 만약에 후보자 부하들이 이런 것을 누락을 하고 3일 뒤에 보고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보고 과정을 확인할 겁니다.

○성일종 위원 이게 국민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다 뭉개고 있다가 이게 언론에 나니까 7일에서야 이걸 보고를 했다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말 간에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왜 3일 동안 이거를 뭉개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말에 계속 보고를 했고 자료를 제출했고……

○성일종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게 7일 날 한 겁니다, 7일 날. 그게 7일에서야 이것……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 담당 부서에서 7일 날 활용해 준 것입니다.

○성일종 위원 천하람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지 않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게 장관의 정직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위원님 말씀 제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여하, 고하를 막론하고 누락이 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재산신고 과정에서는 제가 외국에서 귀국하고 있는 길이었습시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 위원 그런 말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그거는 귀국하는 길에 그것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아요. 7억이라고 하는 돈이 아버지가 물렸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모 찬스까지 쓰고 있는 이런 거에 또 부친께서 4명의 철거민 딱지를 받았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지 않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이게 상가를 또 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이 철거민 딱지 같은 경우를 모르면 이 상가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는 그날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성일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후보자님, 국방부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강신철 장관후보자는 그동안 군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능력이 나 정책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국방부장관을 하더라도 어떤 장관보다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 경력도 아주 가장 핵심 보직들을 하고 또 두루두루 경력을 갖췄고요. 전역 후에는 사우디대사까지 해서 융통성 있는 사고까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개혁과제에 대한 장관의 의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즉 저는 그것이 친위 쿠데타요 내란이라고 생각하는데 12·3 불법 비상계엄 성격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명백한 내란입니다.

○김병주 위원 명백한 내란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이 당시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김병주 위원 법적으로는 연합사는 내란으로부터 벗겨 있는 조직입니다. 저도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지만 그래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별 4개를 달고 군을 지휘했던 면에서는 도덕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는 책임에 비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그 당시 연합사령관이 라케머라 사령관이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김병주 위원 그때 연합사령관은 12·3 내란을 언제 알았고 또 통화를 하든가 만났을 거 아닙니까? 연합사령관의 평가는 내란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연합사령관의 내란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고, 당시 어떻게 알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계엄 이후에 저하고 화상 보안통화를 하자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참모 계통으로 보고를 받고 저와 통화를 원했던 것으로 현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대한민국에서 12·3 내란 같은, 이런 민주화가 선진화된 나라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연합사령관이 대단히 놀라고 또 불법적인 내란이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제가 보고 ‘이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어 달라’ 그 말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후보자는 이제 개혁 과제를 장관이 되시면 추진해야 되는데, 전작권 전환 저는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작권 전환, 전작권 회복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은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전작권 전환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이 되었고 여건도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상호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전장에서 실제 육해공군의 전장이 중첩이 되고 우주, 사이버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통합형 인재 육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통합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보는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이나 견해는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위원님, 이 역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뭐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역대 정부에서 사관학교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사관학교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제가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관학교 통합을 포함해서 소령들 교육받는 육군대학교, 공군대학교, 해군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군에서는—육해공군 대학도 통합을 해서 통합형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의견은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는 육군대학 당시는 학장, 지금은 총장도 겸임을,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합동성을 강화할지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나 국방부에서는 파병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 하면서 신중 입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병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위원님,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동지역에서 공관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직도 저는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적 모병제가 시대적인 과업입니다.

후보자님,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되는 과업인데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입장은 뭐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선택적 모병제는 복무 방식의 선택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개병제는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간부상을 만든다면 저는 더 많은 인원들이 이것을 통해서 군생활도 하고 이어서 자기의 역할을 이후 생활에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된다면 이 부분 더 들여다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榮夏 위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유영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사 작전과 한미연합 방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고 그 경력으로 봤을 때는 국방부장관 경력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청문회 앞두고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여러 신상에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측이 내는 해명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 50만 장병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예요. 장병들에게 법과 원칙, 정직과 책임을 요구하려면 장관 본인부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짚고 정책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 5월 20일부터 2010년 3월 20일까지 화천 7사단에서 근무했었지요? 기억 맞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柳榮夏 위원** 그러면 화천에서 근무했으면, 아마 위수지역 이탈을 못 했으니까 화천에서 근무를 했을 겁니다, 생활도.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등록초본을 보니까 2007년 7월 31일 날 강원도 화천 신평군인아파트로 전입했는데 2008년 3월 21일 날 서울 구로구 천왕동 254-3에 전입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2009년 5월 15일 날 강원도 화천 솔바람마을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기까지 14개월 간 서류상 서울로 거주가 돼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천왕동으로 전입신고 했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 근무했어요. 아시다시피 지휘관들은 휴일 때도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실제로 사용한 데는 생활하고 거주했던 강원도 화천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등록법을 한번 띄워 보실까요? 없으면 그냥 제가……

주민등록법 6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되고, 37조에 보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주민등록 이전지를,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전입한 이유가 뭔지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 주세요.

당시에 보면 천왕동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지로 계획되고 후보자가 전입하고 난 며칠, 4월 10일 날 보상공고가 고시됐어요. 그리고 후보자가 소유한 천왕동 주택도 철거 대상에 포함됐고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으로 서울 우면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받기 위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서울 천왕동으로 전입신고 한 게 아니냐, 지극히 당연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일반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정청약을 위한 고의성 위장전입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입신고 한 데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가족관계 질의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지금 장남이랑 같이 살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지금은 같이 삽니다.

○柳榮夏 위원 평상시에 가족 간에 소통은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柳榮夏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이런 겁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내가 그때…… 외국에 아마 사우디 전권대사로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후보자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은 아이가 있는데 세상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이 정도는 상의를 하는 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냐하면 후보자 장남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월급이 한 250만 원 정도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모한테 5억 빌리고 이모부한테 2억을 빌렸어요. 이모한테는 0.46%, 이자 192만 원입니다, 1년에 2300만 원이고. 240만 원씩 하면 2800이예요. 그러면 한 580만 원 원금을 갚고 있고, 이모부한테는 무이자로 빌렸어요. 이 무이자, 왜 2억을 했느냐. 이게 증여세 면세 지점이에요.

만약에 후보자가 몰랐다고 저는……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할 때 보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이게 명확하게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외국에서 자료 검토를 못 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50만 장병과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다루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재산 목록 하나 제대로 판단 못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50만 장병의 생명과 책임,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결재를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분이 장관이 되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우리 국가안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덧붙이면 만약에 후보자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아이가 ‘아빠, 나 이렇게 돈 빌려

서 7억짜리 상가 구입 할게. 괜찮겠어?’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렇게 구입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조언을 했겠어요? 말렸겠어요? 말렸습니까, 그대로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곤란하시면 나중에……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아들을 믿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연로하신 분이어서 저도 질의드리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2009년도 서귀포시에 사시다가 아마 2011년도 경기도 통진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1년 만에 제주도로 가셨는데 지난번에 보면 대사로 가실 때는 아버지, 부친에 대한 재산의 재산고지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이번 청문회는 법에 따라 고지를 거부했어요. 참 되게, 저는 4성 장군으로서 지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믿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경영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동의해서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사진 안 띄우겠습니다.

부친의 일이라서 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개인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이 농지계획경영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청문회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군인이나 다 그렇듯이 제가 군생활 하면서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 증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철거민 특별공급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제가 살고자 정말 실력도 없는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입니다, 전역 후까지 살려고. 그런 집이, 그 집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전체의 땅과 집이 정부로부터 수용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는 전방에 있었지만 저희 가족들과 협의를 한 것이고 저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전입신고한 이유를 물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바로 그겁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전입신고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유를 물었는데 왜 탄소리하고 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아내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왜 그때 주소를 옮겼지?’, 아내도 기억 못 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제가 GOP 부대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GOP에서…… 저는 GOP에서 대대 주둔지를 네 번이나 옮겼습니다. 축선도 다릅니다. 그때마다 이사를 갑니다. 그때마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부대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줘서 또 계속 거기에 집을 두게는 됩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옮기지 않았을까, 아내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왜 2009년에 옮겼느냐? 저희 아이들이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전방 골짜기, 중학교에 열몇 명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에 와서 같이 살겠다고 해서 주소를 옮겨서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GOP에서 내려왔으니까요.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강신철 국방부장관후보자님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감사합니다.

○민홍철 위원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나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 아주 당당하게 모범적으로 군인 출신답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군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전방 지휘관들의 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전방 지휘관들의, 대대장이나 연대장들의 문제가 소위 말해서 재테크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사단장이나 참모총장께도 그랬습니다. 미군들은 경제 관념이 있어 가지고 경제 교육도 시켜서 이런 문제도 하는데 왜 우리는 경제를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군인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느냐 그런 말까지 했는데 아마 지금 후보자님의 그런 어떤 해명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명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과연 육군대장 출신답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시책 말씀하실 때…… 물론 용사, 전사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사 문화를 확실하게 더 강화시키고 하겠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칫하면 혹시 군사 문화의 어떤 문제가 또 이게 할까 싶어서 용어의 선택을 좀 이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은 보다 유연하고 좀 더 큰 틀에서 헌법과 국가정책에 기반해서 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범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저는 이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스마트강군을 육성을 하고 우리의 전투력을 길러 내는 그런 방법은 헌법과 국가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을 건설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장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 대해서는 각 군 지휘관들에게 맡기고요, 장관은 헌법과 국가정책에 따른 군사력 운용, 전투력을 길러 내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지금 각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문제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

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의지가 애매해요. 제가 묻는 데에 대해서 답변은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통폐합, 통합해서 하나의 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이 개혁 과제 속에 동의하느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꼭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제가 잘 유념해서 국방부장관으로 취임이 된다면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부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앞으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많은 의견 듣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보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보고를 받고,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 제가 의지를 갖고 정말 좋은 사관학교 만들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장관후보자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고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배들이 또 많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이, 예비역 장군들이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 내야 되는데 이겨 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저는 그런 비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정말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훌륭한 인재와 경쟁력이 있는 장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만들어서 교육을, 통합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민홍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의 체계라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관학교, 특히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의 시설과 체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벌써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진해에서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의견들이 시설과 교육을 거기서 좀 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복안을 갖고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가 지금 현재의 기본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제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3군사관학교 통합의 기초 이것을 장관에 취임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기본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기본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말씀도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현재 기본계획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시면 확실한 개혁과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지를 갖고 실현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위원님, 저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고 위원님도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강신철거민’이라는 별명 들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못 들어 봤습니다.

○**천하람 위원**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시던데요.

그리고 후보자님,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야기해서 처음 알았다라고 방금 존경하는 성일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청문회 시작부터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해도 됩니까?

이거 한번 보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이게 2008년 10월 22일에 철거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한 내역이거든요. 여기 신청인이 강신철이라고 나옵니다. 후보자가 한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희가 안 합니다.

○**천하람 위원** 저희가 안 했다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제가 알기로는 저거는 바로 정부에서 SH 주택공사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방금 후보자께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에서 본인이 살던 집이 어

서 정부와 수용 협의가 돼서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희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하람 위원 지금 후보자가 받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 해당 평형은 100%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분양 신청도 했고 실제 이후에 분양도 받았습니다. 5억 2000에 분양받았던 게 지금 22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는 본인의 집이 이런 절차에 따라서 특별분양 신청을 하고 특별분양으로 당첨이 됐다는 걸 하나도 몰랐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희는 보상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 형, 고모 모두 다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아서 본인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버지는 서초네이처힐 2단지, 형님은 천왕동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이게 철거민에 대한 보상, 철거민 특별분양이라는 걸 후보자가 몰랐다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희가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희는 당시 시세로만 해도, 정말 국민 여러분께 외람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가족들이 그럽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지금 시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세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입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장관후보자들, 고위 관료들 청문회를 하면서 철거딱지를 매매해서 문제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딱지를 본인이 직접 받은 경우는 사실 잘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국방부장관 중에 그런 경우 있었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는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보세요. 철거민 보상을 해 주는, 철거민에게 특별히 딱지를 줘서 특별분양을 해 주는 취지가 뭐니까? 왜 그걸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자기 집을 잃었으니까 해 주는 겁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이거는 철거를 당하는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실제 거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그 집 말고 다른 집이 없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딱지를 주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말씀 들어서 이해했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의 아버지가 정말 여기가 철거돼서 갈 곳이 없는…… 그러니까 그 보상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철거민에게 추가로 딱지 특별분양 혜택을 주는 거는 다른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요.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

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 아버지가 그 집이 없으면 살 곳이 없어지는 정말 철거민의 상황이었습니까? 이걸 좀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데 대한 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천하람 위원 정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특별분양 신청을 했 다니까요. 분양 신청을 해야 그 신청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거 추첨을 해서 나오는 거지,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 특별분양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공고문 저도 다시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에서 제시한 인원은 별도의 청약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천하람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00%가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리고 보세요, 또 한 가지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집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강원도에 이미 주민등록지가 있었고요. 그걸 유영하 위원님께서 왜 옮겼냐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이걸 정당한 특별분양으로 받는 거다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옮긴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데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희는 정부가 저희와 협상한 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얘기한 적 없고, 저는 전방에 있었고 그때는 전방에 핸드폰도 안 될 때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봅시다. 정부와 협상해서 이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보자?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등록법상 실제 생활의 근거지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다른 장교분들께서 ‘군인들은 좀 다르게 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방에 있다 보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에 주소를 뒀야 될 필요도 있다. 이 특수성을 봐 달라’, 저도 그래서 봤습니다.

후보자, 그때 배우자와 자녀들 어디 있었습니까? 분당 양지마을에서 학교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실제 거주 말씀하시는데……

○천하람 위원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 날짜 바로 몇 개월 전까지 저희 할머니를 아내가 모시고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고 병원도 아닌 그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그 전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8년에……

후보자님, 쟁점 흐리지 마시고요. 2008년에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천왕동으로 했을 때

그때 배우자가 할머니 모시고 거기 살았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희 아내가 전방, 천왕동, 분당,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때 당시에 아내와 자녀들이 분당 양지마을에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왜 거짓말 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하람 위원 왜 말을 돌리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가 아까 실제 거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GP·GOP 때문에 전방에서…… GP·GOP 가는 거랑 서울 천왕동으로 전입신고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가 주소지 관리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이미 언론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저의 집이었고 정말 저의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아시지만 자주 주소지를 그렇게 옮겨 왔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앞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거짓말이라느니 이런 표현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비판에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표현은 서로 자제합시다.

후보자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을 뵈니까 절제력, 절도도 있고. 또 역량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선배부터 후배들까지 폭넓은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국제 정세에도 매우 박식하다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만 후보자를 뵈니까 정신이 맑고 매우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방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중요한 자원 내지는 역량이다라고 감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란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 12·3 내란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저는 제 나름대로 그때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깊어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사성장군이면서도 내란에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관계에서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유지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문겠습니다.

내란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내란의 소지도 우리 군에서 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희 정보본부장이 연루된 부분 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노상 원과 함께 특수임무 공작계획, 보고를 받아 보십시오. 300단위·알파벳 공작들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그것을 특검에서 지금 추가로 기소할지 말지 하는데 현재로서는 안 돼 있지만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다시 이게 법적인 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앞으로 방첩사와 정보사의 문제점을 치유도 하고 또 방첩 기능도 강화돼야 되고 정보사의 특수한 역량은 보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치유도 하면서 강화도 하는 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장관들이 특수임무 부분 아예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방첩사 시절에 오히려 장관이 감시당하면서 방첩사에 대해서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장관이 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첩사와 정보사, 이 정보 기능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 정보사 부분에 대해서 다루긴 하지만 그러나 정책 차원에서 정보사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떻게 역량이 보장돼야 되고 동시에 어떻게 장관을 비롯한 지휘·통솔 체계에서 관리되고 감독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국방위에서도 논의가 안 되고 정보위에서도 논의가 안 돼서 사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키우면서 동시에 관리해야 되거든요. 장비도 새로 도입해야 되고 사기도 키워야 되고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짚으셔야 되고.

일부러 들리기 위해서 공작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2023년 3월에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는 절대 들키지 않는 공작계획을 보고했는데 2024년에는 들키는 공작계획을 보고하고 훈련하게 하고 장비 도입하게 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1번부터 몇 번까지 무슨 공작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했고 내란에 어떻게 쓰려고 했고.

그것을 특검에서 손을 대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국방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란도 막아야 되고 그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이걸 짚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국방력도 키우고 동시에 내란도 막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후보자께서는 지휘관을 어느 계급부터 지휘관이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현재는 지휘관은 중대장급 이상부터 지휘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연대장 정도 되면…… 부하를 지휘·통솔한다는 그러한 일반론적인 지휘관이 아니고 부대에서 지휘관, 독립적으로 하나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연대장으로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적어도 중령급 이하에서 여전히 내란전담수사본부에 불려 다니고 참고인 조사도 당하고, 소환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위의 책임자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서 더 파고드셔야 될 부분이 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동시에 중하위직 실무자들, 부서관이나 초급장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풀어 줄 부분은 확실하게 풀어 줘서 이분들이 국방의 의무에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안규백 장관님께서 내란에 대한 후속 조치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의 전쟁이 카스피해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엮이면서 갈수록 전쟁의 규모와 동원되는 수단이 커지고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빨간 테로 표시를 해 놔는데 저거는 미군의 전략 개념으로서는 자신들의 부대가 저렇게 동시에 당할 거다, 공격을 당해서 파괴돼서 작전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점을 상상도 못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전력으로, 과연 스스로 방어하면서 할 수 있는 전력이 있는가, 매우 부족하다. 그런 점까지 다 따져 가면서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과 재산 보호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전쟁을 반대한다, 확전도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 전투 목적으로 직접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셔야 되고.

또 어떠한 결정이든 국익이면 다 된다가 아니라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칙을 갖고 이것을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장관으로 취임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장관께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육군사관학교 다니시면서 우리나라 독립전쟁사에 대한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공부했습니다.

○송영길 위원 독립전쟁사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는 않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냥 일반 전사 배우는 속에 들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리고 헌법 공부를 합니까? 헌법 가르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헌법 공부합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육군사관학교가 박정희·전두환·윤석열에 이르기까지—윤석열은 육사 출신은 아닙니다만—핵심 김용현 장관에 이르기까지 육사 출신들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육사 출신이 조국의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헌신한 많은 장군들도 계시고 장교도 계십니다만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제도적으로 통치된 거는 미군 군사영어학교에서 경비사관학교를 통해서 육사가 수립이 됐지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우리 육군사관학교와 대한민국 국군은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한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저는 더 멀리 나아가서 화랑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통들이 내려와서 육군사관학교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때는 봉건주의 시대라 그렇지만 어찌 됐건 우리 군대는 봉건주의 왕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 거듭난 거잖아요, 헌법에 따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헌법에 충성하는 군인 아닙니까, 어떤 왕이나 권력 집단의 사병이 아니라?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국방부장관 되시면, 제가 해사·공사·육사에 독립전쟁사의 과목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동의합니다.

○**송영길 위원** 그것을 꼭 추진해 주세요. 제가 육사에 한 번 가서 특강을 했는데 처음 들어 본 강연이라고 육군 사관생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북방경제협력위원회장으로서 한 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강화돼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송영길 위원** 우리나라 언론이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용어가 북중러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어서 북중러가 일종의,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나토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삼각 군사동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잘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북한과 중국이 합동군사훈련 한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합동훈련 하듯이 북한군과 중국군이 합동해상훈련이나 무슨 공중전투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것은 제가……

○송영길 위원 한 적이 없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송영길 위원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되어 있지만 북중러 간에 군사협력이 있는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북중러 전체가……

○송영길 위원 한꺼번에 3자가 모여서 군사협력한 적이 있었냐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6·25 전후……

○송영길 위원 6·25 때 이후 말고는 없습니다. 6·25 때도 소련군은 아주 비밀리에, 참여는 않고 군사물자만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뉴스를 봐도 북중러 간에 합동군사훈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꺼번에 모인 적도 없어요.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송영길 위원 최근에 중국에도 푸틴, 김정은이 왔지만 따로따로 만나고 헤어졌지 3자가 모인 적이 없다니깐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3국 정상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3국 국방부장관이 모인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없습니다.

○송영길 위원 없습니다.

아주 미묘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관계도 미묘하고 북한은 이 양자의 갈등을 잘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훈련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북중러 군사협력이 되니까 한미일 합동군사 이것을 강화시키자 이 논리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지금 한미일의 협력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 위원 우리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군사동맹이 아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우리나라 영토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우리 국회의원 방문도 항의를 하는 이런 나라하고 군사동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는……

○송영길 위원 정보협력은 하고 있지만……

따라서 저는 이 아시아판 나토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북중러도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송영길 위원 세 번째,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우리 제1전투비행단, T-50B를 비롯한 조종사 훈련과 서남권의 공역 방어에 있고 미국은 전투부대가 있는 건 아니지요? 예비 기지로 있는 것이고, 미 공군은.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송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서산·예천·충주 쪽으로 2028년까지 임시 배치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저는 무안공항의 단계적 확장을 통해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수용성 문제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 텐데 장관 되신 이후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다음에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미반환 기지 문제인데 의정부 캠프 스탠리가 보신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송영길 위원 캠프 스탠리가 철수한 지가 됐는데 지금까지 반환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여러 가지 이유가……

○송영길 위원 핵심 이유가?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한미 간에 협의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가 현장에 가 봤는데, 미군이 철수했는데 반환 기지, 의정부에 있는 미군부대의 85%가 시민들에게 8년째 지금 반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이유는, 코브라 헬기나 사격훈련 장소가 바로 그 옆에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송영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 옆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 훈련을 평택기지에서 헬기가 떠 가지고 이 스탠리 기지에 내려서 급유를 받고 사격 훈련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한 그런 중간 급유기지로써 아주 조그마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이유로 85% 전체를 다 통제하고 반환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문제는 미군하고 설득을 해서……

1분만 더……

못 줘니까?

○위원장 진성준 정리하십시오.

○송영길 위원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심각하게, 지금 의정부 시민들이 정말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유용원입니다.

오랫동안 후보자를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우선 장관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원래 정책질의 위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재산 문제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여쭙고 질의하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민 특공 이번에 처음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야말로 이번에 철거민 특공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언론인으로서 국방장관을 권영해 장관부터 신원식 장관까지 스무 분을 겪어 봤습니다. 그런데 스무 분의 국방장관 중에 철거민 특공과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른 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육사 동기생 중에 선두주자셨고 또 상당한 실력을 갖춘 전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민 특공 문제가 불거진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째 이런 일이. 내가 알던 강신철이 맞나’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요.

오늘 아침 모 신문 제목을 보면 ‘철거민 딱지 4개, 이모 돈으로 상가 산 아들. 기막힌 부동산 대장’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보았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속된 말로 쪽팔린 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와 저희 일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고 저는 그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은 집에.

○유용원 위원 그것은 후보자의 입장에서 팩트를 말씀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유용원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물의 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몇백 명, 몇천 명도 아니고 50만 가까운 대군을 지휘하실 분인데 앞으로 이런 의혹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을 지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 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가가 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보상이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지금 몇십 배의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지금과 그때 생각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부친도

부동산 모르십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부친은 그냥 농사지으시면서 지금까지 사신 분입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불거진 데 대해서 국민이나 아니면 후배 장병들께 좀 사과하시거나 유감을 표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지금 모든 것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께서 저희 가족들한테 많은 관심을 쏟아 주셔서 저희도 다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 보시기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아드님이 7억 상가를 구입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모·이모부와 돈 거래가 있었지만 후보자와 부인께서는 몰랐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아닌 다른 어떤 예비역 장군이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되셨는데 똑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명을 한다면 거기에 믿음이 가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 하여튼 후보자가 그런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책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MDL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유용원 위원** MDL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현재까지는 군사분계선입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MDL 남쪽은 북한 땅입니까, 우리 한국 땅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유용원 위원** 그렇지요? 저는 MDL이 육상의 NLL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후보자께서 몇 년간 군 현역으로 생활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가 35년 생활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지난달에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서 확인한 사항이고 대정부질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서 단순 월선이 아니고 지뢰지대까지 만드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단에서만 한 여섯 곳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합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고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 그런데 이 지형 변화는 어떤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이 내려와서 단순히 선만 넘었다가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 남쪽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구조물—저는 지뢰로 확인했습니다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MDL에 가까우면 경고사격하고 내려오면 사실은 조준 사격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유용원 위원** ‘단호하게’라고 추상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절차를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보안상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는 그대로 당연히 그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한 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소대급 이상이 내려와서 상당 기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도 문제고 예하부대에서 발견해서 상부에, 국방부·합참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알아뭇겠다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청문회 준비팀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바 없는데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아니, 청문회 준비팀에서 뭘 한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후보자에게 보고를 드렸어야지. 저는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엔사에서 이미 우리 군하고 통로를 개척해서 들어가서 한 10~15m가량 내려온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만약 취임하신다면 유엔사와 협조해서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황명선입니다.

후보자께서 육군 46기로 임관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앞서 35년 동안 군생활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경력들을 보니까 야전지휘관부터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황명선 위원** 안보국방전략비서관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아주 그냥 보니까 군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더라고요. 최근에는 주 사우디아라비아대사로서 또 외교 현장에서 문과 무를 겸비한 군사외교 전문가로서 아주 경륜도 쌓아 왔어요. 제가 보면 여느 정부와 무관하게 탁월한 국방정책 전문성과 작전능력을 인정받아 온 보기 드문 군사전략가로서 문민장관의 뒤를 이어 국방부를 이끌 아주 국무위원이 될 적임자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찬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과찬이십니다.

○**황명선 위원**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써 또 향후 국무위원이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내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정책적 역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대내외적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복잡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황명선 위원** 우리 군은 지금 AI와 무인전력이 전장을 지배하는 과학기술 강군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첨단무기체제 속에서 전승을 결정짓는 최후의 요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결국은 사람입니다.

○**황명선 위원** AI와 무인전력이 전면 배치되는 첨단화 국면 속에서 후보자께서 구상하시고 계신 현대전의 본질, 그러니까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AI 등이 이끄는 미래전에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전쟁을 지배할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을 가지고 또 작전도 되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연동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도 중요하고 다양하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이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사람 육성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사관학교에 대한 개혁도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예, 그게 바로 인재지요.

후보자님은, 참 군에 계신 분들 보면 굉장히 아주 딱딱함, 강한 충성심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우리는 12·3 내란을 통해서 맹목적인 명령과 복종 조직문화가 얼마나 큰 해악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후보자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지요, 또 인재양성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지 않는, 또 특히 군 문화가 그동안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명령 불복종은 안 된다, 무조건 복종이다라는 이런 군대문화가 있었던 말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12·3 내란도 발생을 했고 거기의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국방문화와 근본적 혁신 방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도와 법적인 틀 이 두 가지 틀이 저는 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이 제도와 법 당연히 중요하고 저는 이게 문화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문화뿐만 아니라 밖에서 우리 군을 바라봐 주시는 문화가 같이 바뀌어 나가야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종해도 된다는 지금 군 내의 이런 인식들이 안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법

를적으로 보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고민되고 있고 장관으로 취임된다면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 준 4군 체제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정을 했지요.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알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과거의 역대,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 육해공군 3군 체제가 되어 있는데 해병대 독립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역대 다 빌공(空)자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해병대 독립이 단순하게 표를 얻겠다 이런 식의 공약으로 국민들은 인식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준 4군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라는 것은 작전과 지휘 권한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준 4군 체제 왜 필요한지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후보자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우리는 분명히 육해공군, 해병대가 있습니다. 물론 3군 체제라고 해서 육해공군의 군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는 정말 우리 역사와 같이 해 왔던 그러한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병대가 어떻게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준 4군 체제는 해병대를 포함해서 합동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관으로 취임된다면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당연히 기본적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 다 합동성 강화는 핵심이지요. 그리고 통합사관학교의 목표도 합동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황명선 위원** 기본적인, 다 아는 이야기인데, 준 4군 체제, 해병대 독립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방금 이 합동성에 저는 키가 있는데, 핵심이 있는데 해병대의 사령부에서도 이 육해공군을 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황명선 위원** 동의해요. 해병대의 주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는 해병대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국가전략부대의 기동부대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주임무가 상륙작전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다음에 신속대응작전이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황명선 위원** 이러한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과 제도에 명쾌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맞습니다.

○황명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바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합동성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경계작전에 전념하는 등에 관해서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된다면 보다 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우선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 후보자께서 군생활 동안 평가를 보니까 참군인으로 일컬어졌다 그런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있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뭐가 참군인이냐?’ 이렇게 했더니 후보자께서 ‘전사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참군인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모든 군인이 참군인이다.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김병기 위원 그러면 노상원이나 김현태나 김용현도 참군인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군인이 아닌.....

○김병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답변할 필요는 없지만 참군인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후보자가 생각하는 참군인.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게 참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요? 그냥 관념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 때부터 우리 군인들께 ‘참군인이라는 것은 이런이런 사람이 참군인이다’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군인들이 역대 참군인들이 많이 계셨지요. 한 예를 들면 이종찬 전 육군참모총장 같은 분, 부산 정치파동 때 단호하게 군의 병력 동원을 거부하고 중립을 지키셨지요. 사관학교 교재에서도 군인의 모범으로 교육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도에 새로 개편된 교재에서는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를 모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저희 때는 이종찬 장군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고.....

○김병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군인이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군인이 어떤 판단을 해서 때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래야 그게 군인이겠어요, 목숨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아이히만. 그렇지요? 유대인 강제 이송과 학살책을 실무적으로 수행했고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명령에 따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유명하지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나오는 얘기인데.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읽어 봤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런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단 어떤어떤 경우는 절대 안 돼. 이 기준이, 저는 적어도 참군인인의 기준에, 뭐 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정하시겠습니까만 국가와 국민을 해하는 어떤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가와 국민을 해하는 어떤 것도 그것은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실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 지금 답변을 잘 하고 계시는데, 장교 처우나 군인 처우에 관한 문제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예·우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보니까 ‘병력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오려면 많은 보상이 있어야 된다’, 매력적인 근무, 간부상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명예와 책임만 강조하는 것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예군인이, 정예장교가 양성이 될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예장교를 양성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냥 잘?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인재 양성에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김병기 위원 사실은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지요. 왜? 현실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장교 대우를 갖다가……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이 군을 제한하니까 그 전원을 장교로 그리고 간부로 가지고 있다가 전쟁을 벌인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병력 수급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쪽으로 100%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출산을 저하 때문에 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사병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북한처럼 여성을 의무병으로 써야 될 건가, 그렇지 않다면 장교의 대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사실 누구나 다 가기 싫고 누구나 다 고민하는 군에 정말로 장기 복무하게 하고 군을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력적인 군대로 보내려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대우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것을 감당, 감수할 수 있겠느냐거든요. 그것은 후보자께서 거의 그 자리 내놓고 아마 계속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군을 전역한 이후에 그다음의 자리가 보장되느냐는 겁니다. 기업과 전문 직종에서의 매력적인 그것이 연계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미국 같은 데는 잘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교 40개월이잖아요, 훈련까지. 그런데 육군 18개월이잖아요. 군인이 아니시면 가시겠어요? 갔다 와 가지고 취업하는 데 똑같은데? 그런 것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짧게 남았습니다만 한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질의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질의서에 대해서 제일 답변을 잘한 게 제가 질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질의를 제가 한 거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떨까 그래서 봤어요.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미연합 비밀 관련 내용은 공개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거에 관련됐는데 좀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인사청문요청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나 한 답변이에요. 이 자료가 엄청나게 그거 하는데 하나 마나 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실무자들이, 죄송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언론보다 늦게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고 국정감사 때 이 서면답변서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 서면답변서를 저희가 보내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냥 할 일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질의시간이 짧은데 질의를 좀 더 잘, 질의시간에 못 하는 걸 서면답변으로 수준 높게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질의조차도 네 줄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성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에 대해서 정말로 방문을 하든 제한이 되면 대면보고를 하든 아니면 서면답변을 정말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국정감사 때 제가 반드시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해주실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강신철 장관후보자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이렇게 축하하는 제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것은 여기 계신 청문 위원들 중에 제가 아마 우리 후보자를 가장 많이 가까이서 봤고 경험했던 사람일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비서관을 할 때 강신철 후보는 그때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지요. 자주 만났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임종득 위원 조찬을 하면서 안보 정책을 함께 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로 넘어서서 제가 잘리고 교육사령부로 가 있을 때, 교무부장을 할 때 후보자도 사단장 1차 진급에 누락되고 육대 학장으로 와서 저희 앞집에 살았어요. 기억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2차장 할 때 강신철 후보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작전 본부장으로서 또 만났습니다.

그런 많은 기간들을 통해서 강신철 후보의 역량과 군생활 하면서 했던 언행들에 대해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보정책이라든가 주요 현안들이 우리 정상적인 장교 출신이라면 도저히 용납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장관이 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동의를 한 거고 그래서 후보자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이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장관이 되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첫 출근 도어스테핑에서 큰 이슈가 된 것 알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임종득 위원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많은 국민들이, 예비역들이 그다음에 장병들이 ‘국방부장관후보자 맞아? 배우 같다’, 현학적인 내용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사복 입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입니다. 동의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화법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임종득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것에 동의하냐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수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의 말 한마디는 저 밑에 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부하들한테는 그렇게……

○임종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우리는 군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복명복창을 하잖아요. 우리 교육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임종득 위원 그 이유가 바로 하명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뜻과 의지가 잘못 전달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임종득 위원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단순하고 간결하게, 명확한 의도가 부하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국민들이나 우리 장병들도 저한테 이것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적입니다.

○임종득 위원 적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입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관후보자가 그냥 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적과 주적의 차이는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4년 이후 주적에 대한……

○**임종득 위원**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 부분만 다시 확인하고 싶고.

방첩사 해체,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데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장관이 된다면 그 부분 제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 전작권 전환 문제는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같음을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미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있었던 두 가지 사항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수방사 관사에서 그때 생활한 적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주소를 천왕동 주택으로, 증여받아 거기 둔 상태에서 가족은 거기 와 살았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제가 천왕동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본인은 주소를 천왕동에다 뒀더라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 왜 그렇게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은 집이고 제가 또 계속 살 곳이었기 때문에 주소지를 거기에 둔 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PPT 한번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규정들은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비서실장이 대상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가 그때는 육군 대위……

○**임종득 위원** 제가 확인해 봤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대위였습니다.

○**임종득 위원** 육군본부 규정, 수방사 이 심의규정을 다 봤는데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육군 대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거기 관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심사를 거칩니다. 저 육군 대위였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근무한 데…… 보직된 적이 있는가 이것 물었는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야기 했어요. 사실입니까, 이것?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아마도 35특공대대의 정작과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 근무하고 TF로 파견 나가서 그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명예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왜 답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 자체에 제가……

○임종득 위원 명예 의해서 하면 당연히 정작과장을 했어야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는 명령을 받고 어디 벗어난 것도 아니고……

○임종득 위원 무슨 명령을 받았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때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있는데 사령부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또 군이 말씀을 드리면 총기 피탈 사고까지 있어서……

○임종득 위원 PPT 다음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기간이 이렇게 제출됐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35특공대대 정작과장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며칠 있다가……

○임종득 위원 며칠 있었는데 지금 거의 1년에 가까운……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자체가 인사 군기 문란인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아닙니다. 저는 제 임무를……

○임종득 위원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 임무를 수행했고 그때, 더 잘 아실 겁니다. 총기 피탈 사고, 옛날 과거 사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것 후속조치 차원에서 제가 계속 그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대대 정작과장은 필수보직이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걸 안 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육대 정규 과정은……

○임종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서실장 근무를 2년 넘게 하면서 명령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때 육대 정규 과정은 정작과장 임무 수행한 것과 같이 인사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군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종득 위원 나중에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전작권은 사실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정말 많이 강조해서 저도 그렇고 역대 정부에서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준호 위원** 후보자께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천준호 위원** 그리고 12·3 내란의 대외적인 혼란 속에서도 한미연합사의 브런슨 사령관과 최고 지휘부로서 호흡을 맞추면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키셨다라고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천준호 위원** 후보가 전역할 당시에 브런슨 사령관이 ‘전우들의 피로 맺어진 동맹에 뿌리를 둔 강 장군의 리더십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더 강화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두분의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어떤지가 몹시 궁금한데요. 서로의 군사적 판단력, 지휘 스타일들을 아마 깊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고 그것이 앞으로 전작권 환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든든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후보자께서 브런슨 사령관과의 신뢰 관계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브런슨 대장은 한미동맹의 최전선에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탁월한 지휘관입니다. 전략적 지식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저와 같이 파트너로서 많은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혹시 장관 지명 이후에 전작권 환수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브런슨 사령관과 서로 통화를 하시거나 의견을 교환하신 적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때는 파트너였는데 사실 이제는 상급자의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군들 문화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켜 줍니다. 이제 제가 장관으로 취임이 된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될 그런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후보자께서는 한미연합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으로,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 전작권 환수의 시기와 조건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조건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핵심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의 확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군사능력 검증의 주요한 내용이 바로 6개 예하부대의 육해공군·해병대, 연합사령부의 상설화일 텐데요. 4개 부대는 상설화가 완료됐지만 연특사, 연합특수전사령부 그리고 연정사, 연합정보사령부는 아직 상설화되지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두 개 연특사, 연정사의 상설화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뭘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위원님,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연합사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들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수한 부분들이고 협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특사와 연정사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 창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저 또한 관심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쭙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아무래도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요.

○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안규백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상설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추진계획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올해 연특사가 창설되고 내년에 연정사가 창설되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 일정을 지키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외적 변수도 함께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브런슨 사령관은 2029년 1분기 전환을 목표로 언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과 유사한 즈음에 잡혀 있습니다.

혹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불확실성의 한 요소로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전환 시점을 좀 당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전작권 전환은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미 간에 그렇게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SCM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FOC 검증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한미 양국 장관이 X연도를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는 그 순서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천준호 위원 그렇다면 또 국방부에서는 올해 58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연말에, 올해 가을, 10월에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지요? 진행이 될 텐데 이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해져야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도 돌입이 될 텐데 그 시점을 올해 합의하는 과정을 직접 아마 장관께서, 장관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 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 그때 미 측과의 협상 전략, 어떻게 임할 건지에 대한 각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SCM을 올해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가 보장이 되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의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제가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필요하면 제가 장관 취임된 이후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도 드리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제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꿈수로 철거민의 세입자 자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득하신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오해를 좀 갖게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1967년에 조부가 그 땅을 이미 취득하셨고 그 이후에 가족들이 함께 거기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보상 절차로 공급을 받게 되신 과정이 있었던다고요.

그런데 그 앞의 과정이 사실은 생략된 채 특공을 받게 된 과정부터가 보도가 되니까 그전에 증여를 받는 과정과 이것만 확인되다 보니까 특공을 받기 위해서 증여를 받고 취득한 절차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명하신다면 국민들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존경하는 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실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가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친은, 유달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농민운동도 하셨고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서울대 교수셨던 유달영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20대에 학군장교로 제대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천왕동에 20대에 들어가십니다. 거쳐하실 곳이 없는 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예를 들면 귀가 잘 안 들리시거나 말씀을 잘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거기서 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독립을 하실 수 있게 된 이후에 이제 저희들도 성장을 했으니까 저희들에게도 집을 하나씩 지어서 살라고 하셨고 저희들은 계속 거기서 정말 평생 그렇게 즐겁게 살 생각으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제주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주도 농장도 물론 그때부터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오래 계셨느냐? 그때가 감귤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FTA까지 닥쳐왔던 때입니다. 전공이 그것이었으니까 연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같이 노력하셔서 품질도 개량하셨습니다. 그래서 FTA에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극복해 내셨었습니다. 그러느라고 제주도에 계셨던 겁니다. 교육도 시키시고 그 농법도 전파하셨습니다. 제주도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이후에, 우리나라 농업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실패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많은 부자셨다, 인정합니다. 그 땅 다 받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땅 어떻게 쓰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농사 짓고 계십니다. 지금도 80이 넘는 나이에, 기자들도 가셨다는데 한번 가신 기자분들한테 여쭙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지금도 땅을 경작하시면서 사십니다. 아버지도 부동산 투기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저 또한 그런 아버지 보고 자라 왔습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슨 신파극 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라 그러셔서 했는데……

○**위원장 진성준** 천준호 위원께서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

각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이어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송영길 위원님이 얘기한 북·중·러의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북·중·러가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고요, 후보님?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한기호 위원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전방에 근무할 때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었다 그랬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때 당시 핸드폰이 안 됐었습니다, 거기에.

○한기호 위원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당시에 자기가 그 지역에서 근무했는데 핸드폰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핸드폰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지역은.

○한기호 위원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문자를 받았단니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전방에 핸드폰이 되는 곳……

○한기호 위원 말 똑바로 하십시오.

알았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문자를 받았다고요, 그 지역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한기호 위원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지금 급격하게 잘 못하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한기호 위원 지금 장관으로 지명받은 시점이 상태가 좋은 상태에 받은 게 아닙니다. 안규백 장관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동력을 자꾸 잃어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어차피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 왔으니까.

다음, 처음에 도어스테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장관후보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 화법이 저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지적 제가 잘 유념하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그리고 색을, 모습을 아무리 좋게 변화시켜도 실제로 진실은 밝혀진다, 진실에 대해서는 속일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도 제가 청문회하면서 많이 쓰시는 단어를 제가

봤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호하게’ 이런 용어들을 계속 쓰시는데 실제로 장관님이 쓸 용어가 아니에요.

아까 유용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DMZ 안에, 민통선 이남에 적의 지뢰지대가 있다’…… ‘단호하게 하겠다’.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복구를 할 겁니까? 우리 땅으로 안 할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장관으로 취임되면 경계작전을 어떻게 더 촘촘하게 할 것인지……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우리 땅에 북한이 와서 지뢰를 묻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뭐 답이 필요해요? 제거하고 우리 땅으로 복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장관의 태도지.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내가 교언영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이 단호하게 대한민국 땅이 이미 북한에 의해서 지뢰가 매설됐으면 원상 복구시키겠다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단호하게’ 이런 용어를 써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것도 교언영색이에요.

다음, 충신(忠臣)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한 것을 이루는 신하입니다.

○한기호 위원 ‘가운데 중(中)’ 자에다가 ‘마음 심(心)’ 자가 있지요? 저 말은 내가 중심을 잡은 마음으로서 사실은 신하를 같이 붙여 놓으면 지도자에게, 내 윗사람에게 정말 정확하게 조언을 하고 정확하게 갈 길을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왜 제가 첫 장에 대통령 지지도를 보여 주고 교언영색이라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충신이라는 말을 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어느 쪽을 따를 것이냐.

다음, 칠천량해전을 잘 알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 ‘함경도 일기’도 번역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제가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것도 본래 05년도에 잘못된 거라고 나왔지요? 그런데 10년도에 번역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아닙니다. 제가 그 이전에……

○한기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가 그 이전에 냈고 그거는……

○한기호 위원 10년도에 이미 나왔잖아요, 책으로.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제가 1999년에 번역을 했고 그 이후에 나온, 아마 그 이후에 인쇄된 건……

○한기호 위원 나온 순서는, 하여튼 밖에 나온 건 2010년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지 않고, 위서라는 거는 그 위서가……

○한기호 위원 2005년도에 나왔고요, 동아일보에 보도됐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 위서가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미 다……

칠천량해전을 왜 제가 얘기, 왜 저걸 써 났겠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군이 될 거냐 이순신이 될 거냐라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충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임금이 ‘출동을 해라. 부산포하고 칠천량 쪽으로, 거제도 쪽으로 출동하라’. 그런데 ‘지금 출동하면 안 된다. 일본군의 함정이다’ 이래서 출동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잘라 버리지요. 이순신을 잘라 버리고 원군을 내보내지요. 원군보고 나가라 그러지요. 원군이 나가서 우리 해군이 한 160척이 완전히 다 피멸되고 원군은 육지로 도망가다가 죽지요. 임금의 말을 따라서 원군은 결국은 우리 해군을 다 몰살시키고 본인도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금이 얘기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한 거예요.

다음, 지금 그러한 주제 저 10개를 제가 뽑았어요. 장관 인사, 안규백·강신철. 대북 태세, 아까 휴전선의 얘기.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 비상계엄해서 군인 숙청, 군 기강 해이, 군 인사와 진급, 방첩사 해체, 선택적 모병. 저거를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원군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신철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위원님.

○강선영 위원 마음 좀 편히 가지시고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각했으면…… 오늘 하루만 12시까지 시간을 보내면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리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국방부 주변에서는 이번 주 또는 18일이면 장관 이·취임식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님을 너무 잘 알아요. 저하고 너무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강선영 위원 저 소령 때 육군대학교 제 공격교관이십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강선영 위원 그런데 장관후보자가 되시고 제가 알던 명예로운 4성 장군 강신철 장군, 자랑스러운 육사 동문의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강신철 장군의 모습이 자꾸 변해 가는 것은 아닌가, 본인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보여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문하실 때 나가 버렸잖아요. 저도 군인이잖아요.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제 인생 육십 살의 반 이상을 군생활을 했으니까 아직 저는 군복 입은 게 사복 입은 것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저만 그럴까,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나면 여기서의 많은 대화가 없

어질까. 이것은 속기록에 남고 영상으로 남고 많은 선후배 육사 동문들의 기억에 남고 현재 군대 생활한 50만 군인과 군무원의 기억 속에 남는다, 그 측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신철 후보자님께서 생각과 가치관이 저랑 다르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식견과 품성이 훌륭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강신철 후보자님께서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또 막 질타하시는 것 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군생활하시고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저랑 같이 이 어려운 국가안보, 북한이 저렇게 핵을 만들고 전 세계가 전쟁의 화염 속에 있는 상황에서 같이 국가안보를 논하고 정책과제를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 거기 청와대 게이트에서 저한테 ‘대망’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책을 권해 주셔서 그 책 사서 저 읽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다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한 식견을 가진 강신철 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비전의 구현을 저는 진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시기는 제가 조금, 정치에 2년 먼저 들어온 제가 볼 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뜻 펼치기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합참 작전본부장 하실 때 미사일을 발사하면 단호히 대응할 거라고 천명했는데 이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상발사체라고밖에 말 못 하고 MDL을 넘어와도 대응 못하고, 북한은 이것에 대해서 허수아비 군대, 가공한 처지라고 막 조롱할 건데 그러한 나약한 장관의 모습을 가진 강신철 후보자를 보는 것은 매우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제가 이것 드리는 것 진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신철 장관님께 사퇴를 권합니다.

후보자님을 사랑하는 많은 선후배·동료들이 얼마나 멋지게 보는 장군 강신철 후보자님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늘 ‘북한의 정권과 군은 우리의 주적이야’라고 했는데 서면답변서에도 ‘주’ 자 빼고 적이라고 하고 아까 임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주’ 자 못 쓰고 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신철 장군 정도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적이야’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강선영 위원님 말씀 다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적에 대해서, 주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정부가 2004년 이후부터 어떤 정부였던 주적을 쓰지 않아 왔다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선영 위원 사실 말고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적입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작성도 해 왔는데 주적이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그러면 주 아닌 적은 또 뭐지? 이런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적이지요. 적 없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강선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그 적이, 그 적이, 그러면 주적이 아닌 적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대상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강선영 위원 그것을 한문으로 하면 주적이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용어가 그럴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강선영 위원 그것을 굉장히 쓰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그것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강선영 위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전작권 전환, 연합사 부사령관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한미연합 체제가 위기 시에 미국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으로서 데프콘3 이후에 우리 군과 미군을 단독으로 지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아닙니다.

○강선영 위원 아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으면 우리의 군사주권을 뺏기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부분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군사적 주권을 뺏기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국가안보 부분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그러한 상황에 갔을 때 상호 신뢰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한다 그러셨는데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것과 미군이 지휘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사실 한국군의 장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을 잘 아는 지휘관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부지휘관으로부터 서포트를 받는다면 이것이 더 강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 가운데 ‘35특공대대 정작과장으로 보직된 바 있는데 사실은 그 정작과장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 이력에 정작과장을 쓴 것은 잘못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작과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당시 발생했던 총기 피탈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른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직무로 보직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작과장으로 보임된 상태에서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일을 수행한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강신철 명령은 정작과장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고 임무는 파견으로 나가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5특공대대 정작과장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
니다. 군인들은 많은 경우 파견을 갑니다.

○위원장 진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현재 12시 28분까지 등록된 상태입니다.>

임시회의록